

지역 소식통

정읍시, 생활 속 걷기운동 실천으로 시민 건강 행진다

정읍시가 범시민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는 생활터 건강 걷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12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건강 계단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건강 계단 환경조성 사업'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엘리베이터와 계단에 걷기운동에 대한 필요성과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계단과 벽면, 엘리베이터 등에 계단 이용의 건강효과와 칼로리 소비 효과, 기타 건강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해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비만을 감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또는 시설관리자는 시 홈페이지 공문을 참고로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1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539-6532)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정읍시보건의료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063-539-6102)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민대상 스카우트 지도자훈련 종료

부안군은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2박3일, 2회)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서 진행된 '제917기 스카우트 지도자훈련' 참가자와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부안군민대상 스카우트 지도자훈련을 마무리했다.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은 2017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5회 세계잼버리 개최지가 '부안 새만금'으로 확정된 이후,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도자 훈련 14회(중급10, 상급4) 465명의 스카우트 지도자를 배출했다.

훈련 수료 후 스카우트 지도자로서 지역대 창단, 대원교육·행사 및 스카우트 활성화와 더불어 2023 세계잼버리 운영요원 참여로 부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에 중추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실패 두려워 하지 않고 도전할 것”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한 소통행정

고창군,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공모 선정 불발... 지역발전 위한 도전 다짐

고창군이 총력을 다해 추진했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에 아쉽게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전날(27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최종 건립대상지'로 전남 신안군을 선정했다.

가능성을 장점으로 강조했다지만 아쉽게 유치가 실패했다. 그간 갯벌세계유산보전본부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 릴레이 활동 등 전북도민이 하나 되어 열연했고, 지역사회단체들이 앞장서 유치를 지원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전북부의 고창군 유치를 위해 전 도민과 군민이 함께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아쉽고, 속상하고 무엇보다 군민들께 송구스런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정읍시, 1기업 1담당제 추진 등 기업 애로사항 청취 적극 나서

정읍시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과의 소통 강화와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1기업 1담당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 애로사항 발굴을 위해 지역 내 기업인 단체와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통 채널도 활성화한다. 특히 이학수 시장과 최재용 부시장이 직접 기업 현장 방문해 간담회를 추진하며 상담부터 해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2025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정읍시, 총 2246억원 규모 발굴

정읍시가 '2024~2025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시는 정읍의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7일 이학수 시장 주재로 '2024~2025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새 정부 기초와 새로운 도정에 발맞춰 국정과제와 도정과제에 부합하는 정읍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이학수 시장과 최재용 부시장을 비롯해 사업 담당 실·과·소장과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발굴된 신규사업은 총 35건이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모두 2,246억 원, 2024년도 국비 요구액은 202억 원 규모다.

중양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 13건에 사업비 1,129억 원, 환경부 3건에 사업비 237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건에 사업비 276억 원 등이다.



정읍시는 정읍의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7일 이학수 시장 주재로 '2024~2025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지역 개발(농촌협약)사업(430억원) △애당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291억원) △반려동물 방사선의학 밸류체인 구축사업(180억원) △산내면 매죽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118.5억원) △도시재생(시기동-우리동네 살리기)사업(84억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70억원) △탈교개 숲 향기 탐방로 출력다리 설치사업(56억원) 등이 발굴됐다.

시는 이번에 발굴한 국가 예산 사업은 전북도·중앙부처의 의견 수렴과 지역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부정책과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9대 부안군의회 첫 군정질문 실시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제334회 임시회를 통해 제9대 원구성 이후 첫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행했다. 군정질문은 총 이틀간 9명의 의원이 군정 전반에 걸쳐 47건의 주제로 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였다.

'돌파거리 공공주차장 건립공사 문제점', 박태수 의원이 '부안청사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 김두래 의원이 '장애인 콜택시 운영 확대 방안' 등 22건의 질문을 실시했다. 또한, 27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박병래 의원이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언급하는 한편,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학교 또는 센터 설치 의함에 대해 추가로 군수에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충 질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날 김형태 의원이 '제3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박병래 의원이 '재난지원금 지급 의향 및 방법', 이강세 의원이 '부안읍성의 활용 방안', 이용남 의원이 '인근 시군과의 경계 조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 마련', 김원진 의원이 '심성제 수변 및 자연숲 생태공원 조성 방안' 등 25건의 질문을 실시하였고, 둘째날에는 이학수 의원이 '부안군 수도작 비 공동방제 대책', 이현기 의원이

김광수 의장은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좀더 확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제기된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그린시티 시상식서 '환경부장관상'

고창군이 지난 27일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가 주관하는 '제10회 그린시티(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시상식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4년부터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그린시티'는 환경부가 환경관리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시상하고 환경 친화 지방행정을 확산시키고자 시행 중인 사업이다.

자체가 선정되었다. 환경부장관상은 전라북도 고창군 등 4곳이 수상했다. 도시환경·자연환경·기후변화 대응·리더십·주민참여 등 평가 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 평가를 거쳐 우수한 6개 지자체를 수상자로 발표했는데, 고창군이 군부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었다. 고창군은 '생태 일번지 고창'이라는 타이틀로 전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의 생태관광도시 조성이



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린시티'로 선정된 지자체는 현판과 상패를 수여받는 것은 물론, 향후 환경부의 환경 관련 평가사업에서 '우선 고려대상'으로 분류돼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의회 의정비 1.4% 인상안 결정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가 지난 27일 고창군청 2층 상환실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고창군 의원에 지급할 의정비를 심의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군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됐다. 지역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동일할 월 110만원(연 132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2023년도 월정수당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만큼 인상한 월 187만1800원(연 2,25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9대 고창군의회 의원들은 2023년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연간 3573만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anti-smoking campaign with text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Are you still hesitating?) and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Jeonju Daily Anti-smoking Campaign).